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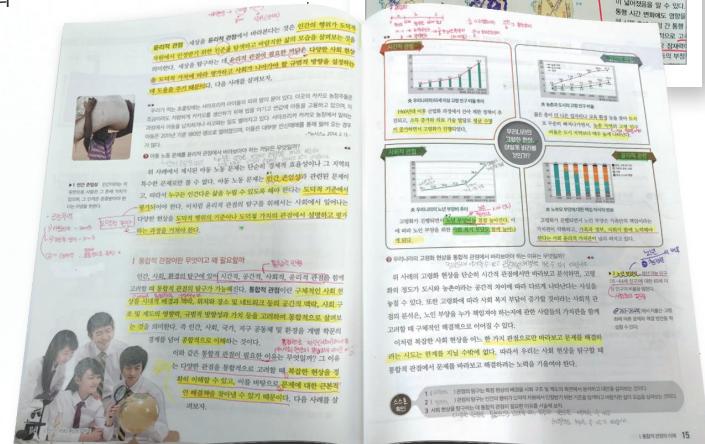


〈통합사회〉 공부의 시작은 전체적인 내용 파악

김래원
서울 오금고 3학년

방송 PD가 꿈이라는 래원 학생. 작년에 일어났던 국정 농단 사건과 이에 대한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보며 '올바른 방송'을 고민했고 공정하고 바른 방송을 만드는 PD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평소 경제에 가장 흥미가 있다는 래원 학생은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가 궁금했는데 학교 경제 수업을 통해 다양한 시장 경제 원리를 알게 돼 좋았다고 전한다. 래원 학생은 "모든 영역에 통합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졌다"며 "경제처럼 원리나 이론이 중요한 영역은 원리나 이론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 좋겠다"는 통합적 관점 강조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더했다. 또한, 〈통합사회〉를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무조건 전부 외우려고 하기보다 마인드맵이나 백지 노트 등을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조언을 전했다.

래원 학생의 지필고사 대비 4주 전략



〈통합사회〉 사회를 보는 넓은 틀이랍니다

의외로 〈통합과학〉보다 〈통합사회〉를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다. 법칙과 계산 등을 통해 답을 얻어내는 과학 과목과 달리 어떠한 주제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통합사회〉가 막연하다는 것. '통합'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지 말고 '교과서에 충실'하면서 더 넓은 틀로 사회를 본다는 생각으로 대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하는 래원 학생의 〈통합사회〉 지필고사 대비 전략을 살펴봤다.

취재 김지민 리포터 sally0602@naeil.com

